

2012
November 23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Weekly Healthcare Industry Trends



포커스

개인맞춤의료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현황

정책동향

- [미국] 미 산부인과학회, 피임약 OTC 판매 허용 요구
- [일본] 일 후생성, BCG 예방접종 '1세 미만'으로 확대
- [중국] 중국, EU에 중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촉구
- [아시아] ADB, 아시아 정부에 담뱃값 인상 정책 권고

산업동향

- [EU] 쿠바 유전공학센터, 스페인 프락시스와 '허버프로트-P' 제휴
- [호주] 호주 플린더스대, 시차 적용 첨단 선글라스 '리타이머' 개발
- [미국] 미 노스웨스턴대, "건선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위험 높여"
- [중동] 프랑스 로레알, 사우디 합작 투자사 '로레알 KSA' 설립

신규보고서

- [글로벌] '12년 혁신적 의료 진단기기
- [글로벌] 이슬람 할랄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포커스

- 개인맞춤의료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현황 1

정책동향

- [미국] 미 산부인과학회, 피임약 OTC 판매 허용 요구 5
- [미국] 미국, 낙후지역일수록 항생제 처방 빈번 5
- [미국] 미 의료업계, 유방조영술 과잉진단 대책 마련 시급 6
- [일본] 일 후생성, BCG 예방접종 '1세 미만'으로 확대 6
- [일본] 일 사회보장심의, 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 확대안 총선후 결정 7
- [일본] 일본, 의약품 '등록 판매자' 부정시험 파문 확산 7
- [EU] 이탈리아제약협회, 노바티스 독감 백신 공급유보 철회 8
- [EU] 아일랜드, 낙태금지 논란 확산 ... 구체적 법률 제정 목소리 고조 8
- [중국] 중국, EU에 중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촉구 9
- [아시아] ADB, 아시아 정부에 담뱃값 인상 정책 권고 9

산업동향

- [EU] 쿠바 유전공학센터, 스페인 프락시스와 '허버프리트-P' 제휴 10
- [일본] 독 바이엘, 향후 5년간 일본에 5억 유로 투자 10
- [영국] 영국 치매 사망자,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11
- [글로벌] 의료관광, 성장산업으로 부상 ... 글로벌 시민 절반 이상 '긍정적' 11
- [호주] 호주 플린더스대, 시차 적응 첨단 선글라스 '리타이머' 개발 12
- [아시아] 프랑스 사노피, 인도·태국에서 뎅기열 백신 임상시험 12
- [미국] 미 노스웨스턴대, "건선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위험 높여" 13
- [EU] 아이슬란드 디코드, 'TREM-2' 변이 시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 확인 13
- [미국] 미 베네오, 향수 기능 함유 캔디 시판 14
- [중동] 프랑스 로레알, 사우디 합작 투자사 '로레알 KSA' 설립 14

신규보고서

- [글로벌] '12년 혁신적 의료 진단기기 15
- [글로벌] 이슬람 할랄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16

포커스

개인맞춤의료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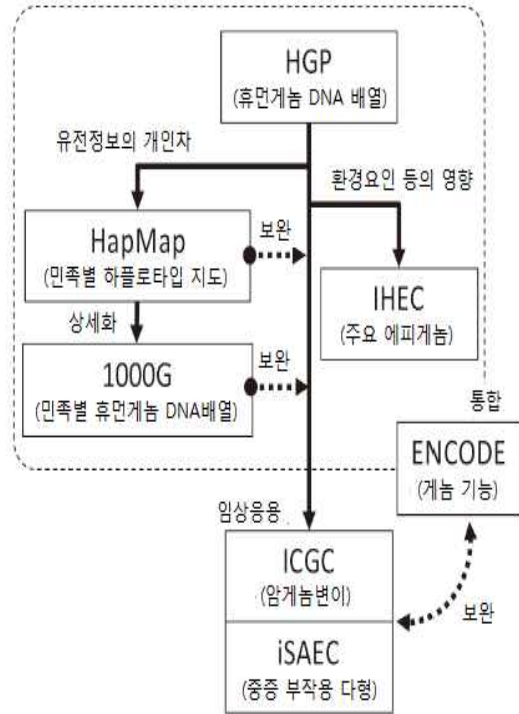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맞춤의료가 차세대 의료로 주목. 개인맞춤의료를 위한 생명현상 규명이 소수의 연구기관이나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협력을 추진. 본 자료는 일본 의료산업정책연구소가 '12년 11월 발표한 '개인맞춤의료 기반 국제 프로젝트(個別化医療の基盤となる国際プロジェクト)'를 통해 개인맞춤의료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을 고찰

□ 개인맞춤의료 분야의 국제 협력 배경 및 전망

- (배경) 생명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맞춤의료가 차세대 의료로 주목
 - 개인맞춤의료는 환자의 유전적 배경, 생리적 상태,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해 환자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공
 - △유효성·안전성·유효율 개선, △미충족 의료 수요 대응, △의료경제학적 문제 등 의료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필요성) 개인맞춤의료를 위한 생명현상 규명이 소수의 연구기관이나 국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협력을 추진
 - 생명과학 분야에서 인간 유전자 지도 초안이 작성된 이후 의료·의약품 분야가 비약적으로 진보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인간의 DNA 배열구조 규명 정도로는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
 - 각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맞춤의료의 기반이 되는 인간게놈 관련 국제 프로젝트들을 추진

<표> 개인맞춤의료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

<p>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1990) -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중국</p>
<p>국제 합맵 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 HapMap, 2002) - 미국·영국·일본·캐나다·중국</p>
<p>ENCODE 프로젝트(Encyclopedia of the Human DNA Elements Project, 2003) - 미국·영국·일본·스페인·싱가포르</p>
<p>중증 유해사례 국제컨소시엄(International Serious Adverse Event Consortium, iSAEC, 2007) - 웰컴트러스트(Wellcome Trust) 및 11개 제약사</p>
<p>1000게놈 프로젝트(1000 Genomes Project, 1000G, 2008) - 미국·영국·중국·독일·캐나다·기타 11개국</p>
<p>국제 암 게놈 컨소시엄(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 ICGC, 2008) - 미국·영국·일본·중국·EU·캐나다·기타 6개국</p>
<p>국제 에피게놈 컨소시엄(International Human Epigenome Consortium, IHEC, 2010) - 미국·일본·EU·독일·캐나다·한국·이탈리아</p>



- (전망) 생명과학 연구분야가 게놈과학을 기반으로 단백질학, 대사체학, 시스템생물학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국제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 국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충분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 연구 성과가 개인맞춤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

□ 개인맞춤의료 관련 국제 프로젝트 현황

- (인간게놈 프로젝트) '90년 인간게놈을 구성하는 모든 DNA 염기서열 정보 해독을 목표로 출범해 '03년 해독 완료를 선언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6개국 2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13년간 총 30억불 이상의 자금을 투입
- 인간게놈 프로젝트에서 DNA 염기서열 정보가 정비된 이후 게놈의학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이 빠르게 발전

- **(국제 합맵 프로젝트)** 임상응용을 위해 인간게놈 상의 유전자다형성 정보기반을 작성하기 위한 다국간 국제협력
 - 합맵(HapMap)은 하플로타입* 지도를 작성한다는 의미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단일염기다형성(SNP)에 관한 방대한 연구기반이 구축되었고, 대량의 단일염기형성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석하는 DNA칩 기술이 개발
 - * 휴먼게놈상의 염기배열 순서 차이인 단일염기다형성(SNP)은 약제의 효과, 부작용, 질환과의 연관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SNP는 세트로 유전되는데 이러한 'SNP세트'를 하플로타입으로 지칭. 모든 게놈의 하플로타입 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게놈 전체의 유전자형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 **(1천 게놈 프로젝트)** 차세대 DNA시퀀스를 이용해 보다 전세계 26개국 2천6백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세한 게놈지도 작성
 - 이를 통해 단일염기다형성 이외에 게놈구조 변이도 해석 툴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질환 관련 유전자 검출속도가 5~10배 이상 빨라질 전망
 - 프로젝트 결과물인 인간게놈 정보는 아마존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과 연구자에 공개

- **(ENCODE 프로젝트)** 인간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인간게놈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게놈 백과사전을 작성
 - 그동안 '정크 DNA'*로 인식되었던 DNA 염기 중 최소 80%가 암 등 각종 질병과 돌연변이에 관여하고 있음이 규명
 - * 인간게놈 32억개 DNA 염기 중 생명현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98%를 의미
 - 동 프로젝트를 통해 휴먼게놈의 기능을 더욱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가 추가되면 충실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증 유해사례 국제컨소시엄)** 발생빈도가 낮은 약제유발성 중증 유해사례의 발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유전자 변이의 특정·검증을 위해 설립
 - △제 1기 연구('07~'10년)는 약제성간 장애,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QT 연장 증후군 등에 관한 유전자 마커 특정, △제2기 연구('10~'12년)는 약제성 급성과민성 반응, 혈관성 부종 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 (국제 암 게놈 컨소시엄) 임상적으로 중요한 암을 선정해 포괄적인 유전자 변이 카탈로그를 작성
 - 정보교환, 유전자 해석 중복방지 등을 통해 50 종류, 2만 5천 증례 이상의 암 관련 데이터 수집을 목표
 - * '12년 8월 현재 6천590 증례를 해석한 데이터를 공개
 - 각각의 암에 생긴 유전자 변이를 망라해 만든 카탈로그가 새로운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기반정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국제 휴먼 에피게놈 컨소시엄) 인간 세포의 중요한 에피게놈에 대한 레퍼런스맵을 작성하고 향후 10년내 최소한 1천개의 표준 에피게놈을 해독
 - 에피게놈이란 유전체가 아니면서 유전형질의 발현에 관여하는 물질로 환경요인 등 외부자극에 따라 후천적으로 변화하며 질환의 발병 및 진행과의 연관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표> 에피게놈 관련 국가별 프로젝트 개요

국가	프로젝트명(예산)	프로젝트 개요
미국	NIH Roadmap Epigenomics Project (1억9천만불+a)	NIH가 '08년 시작했으며 차세대 에피게놈 해석기술 개발 및 정상인과 각종 질환의 에피게놈 해석. 암, 신경, 정신, 대사, 면역, 신장 등 각종 질환을 기반으로 실시
일본	CREST 'Disease Epigenome' (5천만불)	JST의 전략적 창조연구추진사업 CREST로 추진. '11년도 CREST 신규연구영역으로 '에피게놈연구에 입각한 진단·치료를 위한 신기술 창출' 발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재생의료 실현 등을 위한 에피게놈 비교로 질환해석, 줄기세포 분화기능 규명 등 기반기술 창출이 목표
EU	BLUEPRINT (3천만 유로)	EU FP7이 약 3천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고 유럽내 41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 정상인과 악성 백혈병환자의 조혈세포에 초점을 맞춰 '16년 4월까지 최소한 1백개의 레퍼런스 에피게놈을 해석할 계획
독일	DEEP (1천6백만 유로)	독일 교육연구부가 약 1천6백만 유로의 자금을 제공하며 21개 연구그룹이 참여하는 17개 서브 프로젝트로 구성. '17년까지 70개 레퍼런스 에피게놈 해석이 목표
캐나다	Epigenomic Platform Program (1천5백만불)	CEEHRC*가 4개의 에피게놈 해석기관에 총 1천5백만불을 제공해 실시중인 프로젝트. 다양한 타입의 세포를 이용해 5년간 2백개의 레퍼런스 에피게놈을 해석할 예정

* CEEHRC : Canada Epigenetics Environment and Health Research Consortium

정책동향

미 산부인과학회, 피임약 OTC 판매 허용 요구

- 미국 산부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 ACOG)는 피임약도 콘돔처럼 OTC로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
 - ACOG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임신의 절반 정도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었으며, 이들 임산부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며 가정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산모와 태아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
 - 또 미국 사회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해결하는 데만 매년 110억불 이상의 낙태자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ACOG는 피임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어 콘돔과 같이 OTC로 판매되어도 큰 문제가 없으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OTC 판매가 요구된다고 강조
 - 한편 ACOG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 피임비용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다짐 [CBS News, 2012.11.20]

미국, 낙후지역일수록 항생제 처방 빈번

- 미국 질병역학경제정책센터(Center for Disease Dynamics, Economics & Policy : CDDEP)는 경제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항생제 처방이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99년에서 '10년 사이 50개주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17% 감소한 가운데, 낙후된 주들은 상승하거나 감소폭이 미미한 반면 부유한 주들은 감소폭이 현저
 - *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는 각각 플러스 2%와 마이너스 6% 앨라배마·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아칸소도 마이너스 7%~마이너스 17%를 기록한 반면, 워싱턴·알래스카·캘리포니아는 마이너스 25%~마이너스 33%를 기록
 - CDDEP는 항생제 처방이 적은 주들은 주정부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생제 처방 비율 차이는 교육과 소득 등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 [CDDEP, 2012.11.13]

미 의료업계, 유방조영술 과잉진단 대책 마련 시급

- 미국 의료업계에 유방조영술이 도입된 이후 조기 유방암 진단에는 도움이 된 반면 과잉진단이 확산되면서 환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
 - 미국 오레곤대 연구팀이 지난 '76년에서 '08년 사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병기별 유방암 발견을 변화를 추적한 결과 유방조영술 도입 이후 조기 유방암의 연간 발견 건수는 10만명 당 112건에서 234건으로 약 2배 증가
 - 그러나 5년 생존율이 25%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가 유방조영술 검진을 받아 얻게 되는 이득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 또 '08년에만 7만명 이상 여성에게 유방조영술이 과잉진단되는 등 지난 30년 동안 130만명에게 과잉진단되어 이들이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고 유방암 치료에 대해 우려하도록 만드는 등 정신적·경제적 부작용을 유발
 -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의료업계에 유방조영술 과잉진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 [Detroit Free Press, 2012.11.23]

일 후생성, BCG 예방접종 '1세 미만' 으로 확대

- 일본 후생노동성은 결핵 예방을 위한 BCG 백신의 예방접종 연령을 현행 '생후 6개월 미만'에서 '1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표준 접종 기간으로 '생후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을 권장
 - 이는 BCG 접종을 받은 영아들 사이 뼈에 통증과 골수염 등 부작용 보고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후생성은 접종 시기를 늦춰 발병을 억제한다는 방침
 - 후생성은 지난 '05년 BCG 백신의 정기 예방접종 연령을 '4세 미만'에서 '생후 6개월 미만'으로 앞당긴 바 있으며 이후 생후 3·4 개월의 영아가 예방접종을 받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급증
 - BCG 예방접종 연장 조치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 [朝日新聞, 2012.11.14]

일 사회보장심의, 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 확대안 총선후 결정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는 70~74세 고령자들의 의료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오는 12월 16일 총선 이후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
 - 또 70세 미만 고령 환자의 연간 의료비 자기 부담액에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총선 이후 확정하기로 합의
 - 고령자 의료비 자기부담 확대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조합과 전국건강보험협회 등은 의료보험에서 세대간 형평성이 요구된다고 찬성하는 반면, 일본의 사회 등은 진료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 * 이와 관련, 노인단체들은 특히 저소득 노인들이 적어도 최소한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줄 것을 요구 [日本經濟新聞, 2012.11.16]

일본, 의약품 ‘등록 판매자’ 부정시험 파문 확산

- 일본에서 약사가 아니더라도 일부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 판매자’ 시험 부정이 발각돼 파문이 확산
 - 대형 슈퍼체인 세이유(西友)는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위조한 실무경험 증명서를 발급해 시험을 치르도록 한 사실이 발각
 - * 등록 판매자 시험(각 도도부현 주관) 응시 자격은 의약품 판매에 1년 동안 월 80시간 이상 종사한 자로 근무처가 발행한 실무경험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 파문이 확산되자 도쿄도 등 관련 지자체는 실태 조사 이후 합격을 취소할 방침이며, 후생노동성 역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등록 판매자 제도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
 -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 체인 드럭스토어협회(Japan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 : JACDS)는 등록 판매자 시험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약국 등 회원 170개 업체에 직원의 응시자격 철저 확인 등 재발 방지를 당부 [藥事日報, 2012.11.19]

이탈리아제약협회, 노바티스 독감 백신 공급유보 철회

- 이탈리아제약협회(AIFA)는 스위스 노바티스(Novartis)의 독감 백신 제품들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단행했던 공급유보 조치를 철회
 - AIFA는 아그리팔(Agrippal)과 플루아드(Fluad) 등 독감 백신에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
 - * AIFA는 노바티스가 공급을 시작하지 않은 독감 백신 중 48만8천 도스에서 단백질 응고물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는 EU 일부 국가의 발표가 나오자 예방적 차원에서 공급유보 조치를 실시
 - 노바티스는 '12~'13년 이탈리아에 3백만 도스의 아그리팔과 플루아드를 공급할 예정으로, 1백만 도스는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공급이 완료
 - 그러나 영국과 독일에서는 공급유보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그리팔과 플루아드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상태 [PharmaBiz, 2012.11.12]

아일랜드, 낙태금지 논란 확산 ... 구체적 법률 제정 목소리 고조

- 아일랜드에서 태아 사망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도 임신부가 제때 낙태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낙태금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
 - 임신 17주인 치과 의사 사비타 할라판나바(Savita Halappanavar)는 심한 요통으로 병원을 찾아 낙태를 요청했으나 의사로부터 태아의 심장이 뛰는 한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한 뒤 결국 사망, 사회적 논란이 증폭
 -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대법원이 지난 '92년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낙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 유럽인권법원은 지난 '10년 아일랜드 정부에 구체적인 낙태 법률 제정을 권고
 - 아일랜드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낙태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할라판나바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 낙태수술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AP, 2012.11.16]

중국, EU에 중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촉구

- 중국 위생부 왕귀창(Wang Guoqiang) 부부장이 EU에 중의약품 수입 제한 조치 완화를 촉구
 - 왕 부부장은 과학적 실험 결과를 중시하는 서구와 달리 중국에서는 맥박을 진단해 증상을 파악한 뒤 환자에 적합한 약초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EU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 EU는 30년(EU 역내에서의 15년 포함)간 안전한 제품으로 사용되어 EU 회원국으로부터 안정성을 입증받은 중의약품이 아닌, 중국산 약초로 제조된 의약품은 수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04년 3월 제정한 뒤 '11년 5월부터 시행에 돌입
 - 또 왕 부부장은 서구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은 정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서양의학과 중의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국 특유의 제도를 구비할 것이라고 강조

[China Post, 2012.11.13]

ADB, 아시아 정부에 담뱃값 인상 정책 권고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은 흡연율이 높은 아시아 5개국(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사회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들 정부에 담뱃값 인상 정책을 권고
 - ADB는 이들 5개국의 흡연자 수를 4억2백만명, 잠재적 흡연자 수를 1억3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들 5개국에서 2억6천7백만명이 궁극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
 - ADB는 그러나 이들 5개국에서 담뱃값을 50%만 인상해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천7백만 명 감소하고 금연자 수는 6천7백만 명 증가하며, 이들 정부는 연간 총 240억불 이상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또 담뱃값이 100% 인상될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천5백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

[Bangkok Post, 2012.11.13]

산업동향

쿠바 유전공학센터, 스페인 프락시스와 ‘허버프로트-P’ 제휴

- 쿠바유전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센터(Cuban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 CCGEB)는 스페인 제약회사 프락시스(Praxis)와 당뇨성 족부 궤양 치료제 ‘허버프로트-P(Heberprot-P)’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이번 제휴로 쿠바 정부는 허버프로트-P 수출로 인한 금전적 수입을 기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산업에서 보유한 R&D 역량을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
 - CCGEB가 개발한 허버프로트-P는 지난 '06년 쿠바에서 처음 승인된 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했으나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해 CCGEB가 자의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
 - 그러나 이번 제휴는 쿠바에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 한편 쿠바 정부는 의약품·의료장비 수출액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11년 그 규모가 5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Financial Times, 2012.11.14]

독 바이엘, 향후 5년간 일본에 5억 유로 투자

- 마린 데커스(Marijn Dekkers) 독일 바이엘(Bayer) 최고경영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일본에서 5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발표
 - 5억 유로 중 10% 정도는 소재(materials), 5% 이상은 농화학(agrochemicals) 부문 개발에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투입
 - 현재 바이엘은 순환기와 종양, 안과 등 부문에서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러한 분야의 임상시험을 강화한다는 방침
 - 바이엘은 오는 '17년까지 일본 현지 법인의 매출을 연 평균 7%씩 증가시켜 '17년에는 '11년 대비 40% 많은 3천3백억엔으로 끌어올릴 계획

[NIKKEI.com, 2012.11.23]

영국 치매 사망자,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국에서 전체 사망자 가운데 치매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
 - '1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치매로 숨진 여성 사망자 비율은 10.3%로 10년 전인 '01년의 4.3%에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기간 남성 치매 사망자 비율 역시 2.0%에서 5.2%로 급증
 - 치매 환자 급증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1년 영국 치매 환자 사망자 수는 1백만명에 육박해 전체 사망 원인의 12%나 될 것으로 우려
 - * 현재 영국에는 치매 환자가 80만 명(알츠하이머 환자 50만 명) 정도인 가운데 65세에는 20명 중 1명, 80세에는 5명 중 1명, 90세에는 3명 중 1명, 95세에는 2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 [Telegraph, 2012.11.06]

의료관광, 성장산업으로 부상...글로벌 시민 절반 이상 '긍정적'

- 글로벌 여론조사업체인 입소스(Ipsos)가 로이터통신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시민 절반 이상이 의료관광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
 - 입소스가 전세계 24개국 16~64세 성인 1만8천7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의료관광 인식을 조사한 결과 18%가 타국 의료 서비스 비용이 자국보다 저렴할 경우 반드시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대답
 - * 인도 국민은 35%, 인도네시아 32%, 러시아 32%, 멕시코와 폴란드 국민은 각각 31%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등 특히 개도국 국민들이 의료관광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석
 - 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36%, 아마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30%, 전혀 방문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16%로 집계된 가운데, 49세 이하가 50세 이상보다 의료관광에 더 긍정적
 - 이러한 결과는 의료관광이 이미 하나의 성장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Ipsos, 2012.11.13]

호주 플린더스대, 시차 적응 첨단 선글라스 ‘리타이머’ 개발

○ 호주 플린더스대 연구팀은 장거리 비행기 여행으로 인한 시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첨단 선글라스 ‘리타이머(Re-timer)’를 개발

- 연구팀은 초록색 빛이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뇌 부위에 작용해 다른 신체 기관들이 시간대가 다른 지역에 와 있음을 인식하도록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 착안, 초록색 빛을 방출하도록 신제품을 제작



- 장거리 비행기 여행자가 출발 전 3일 동안 매일 50분(생체시계를 앞당기려면 기상 후 50분, 늦추려면 취침 전 50분)씩 착용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뒤 현지 시간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

* 장거리 비행기 여행자 중 시차로 어려움을 비율은 94% 정도

- 리타이머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집이나 직장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착용이 가능하고, 아이들과 야근자 및 불면증 환자들의 수면 패턴을 바꾸는 데도 도움 [Telegraph, 2012.11.22]

프랑스 사노피, 인도·태국에서 뎅기열 백신 임상시험

○ 프랑스 사노피 파스퇴르(Sanofi Pasteur)는 인도와 태국에서의 뎅기열 백신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이르면 '15년 동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계획

- 사노피는 일단 인도에서 120여 성인을 대상으로 뎅기열 백신 임상시험을 시행한 뒤 그 결과를 '13년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도 진행할 계획

* 인도 의약당국은 사노피에 뎅기열 백신 임상시험을 성인과 어린이 순서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백신 공급 라이선스 발급 의사도 피력

- 뎅기열은 두통, 탈진,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증상을 보이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모기로 인해 감염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지난 '70년 뎅기열 발병은 전세계 9개국에서만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1백여 국가로 확대된 가운데 매년 5천만~1억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 [Times of India, 2012.11.19]

미 노스웨스턴대, “건선이 소아·청소년 과체중·비만 위험 높여”

-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은 건선(Psoriasis)이 있는 소아·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과체중 내지 비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를 피부과학기록(Archives of Dermatology)을 통해 발표
 - 건선은 피부 각질 세포가 정상보다 빨리 자라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면역체계가 피부를 외부물질로 오인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고 있지 않은 상태
 - 연구팀은 건선이 있는 5~17세 소아·청소년 409명과 없는 205명 등 총 6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선이 있는 집단은 비만이 될 위험이 4배 높은 가운데 건선이 심한 경우는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
 - * 또 가벼운 건선이 있는 소아·청소년들도 과체중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건선이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만과 연관이 있는 염증 유발 단백질인 사이토킨(cytokine)이 체내에서 과다하게 생성되기 때문으로 분석 [HealthDay News, 2012.11.19]

아이슬란드 디코드, ‘TREM-2’ 변이 시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 확인

- 아이슬란드의 유전자분석 기업 디코드 지네틱스(deCODE Genetics)는 ‘TREM-2’ 유전자가 변이되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통해 발표
 - 연구팀은 아이슬란드 노인 2천261명의 게놈을 분석, TREM-2 유전자가 변이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알츠하이머 발생률이 3배 높다는 사실을 확인
 - * TREM-2 유전자 변이는 알츠하이머는 아니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서도 발견
 - 또 미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치매환자 3천550명과 건강한 대조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전자 분석에서도 TREM-2 유전자가 변이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 발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확인
 -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TREM-2 유전자가 뇌에 누적되는 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 노폐물을 제거하면서 뇌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 [Medical News Today, 2012.11.15]

미 베네오, 향수 기능 함유 캔디 시판

- 미국의 건강기능 식품업체 베네오(Beneo)가 불가리아 제과업체 알피(Alpi)와 공동으로 향수 기능이 함유된 ‘데오 퍼퓸 캔디(Deo Perfume Candy)’를 시판
 - 이 캔디는 먹으면 몸냄새 발산이 억제될 뿐 아니라 피부에 장미 향기가 배도록 한 일종의 건강기능 식품
 - * 베네오측은 체중 145 파운드의 성인이 데오 퍼퓸 캔디를 먹으면 최대 6 시간까지 장미향이 지속적으로 발산된다고 설명
 - 데오 퍼퓸 캔디는 장미 오일에서 추출한 알코올 성분인 게라니올(geraniol)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내 모공을 통해 향기가 발산
 - 데오 퍼퓸 캔디는 현재 스페인·독일·중국 등지에서 판매 중이며, 미국에서도 조만간 판매에 들어갈 예정 [Mother Nature Network, 2012.11.14]

프랑스 로레알, 사우디 합작 투자사 ‘로레알 KSA’ 설립

- 프랑스 로레알(L'Oreal)이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기 그룹(Al Naghi Group)과 ‘로레알 KSA(L'Oreal KSA)’를 공동 설립
 - 이번 합작 투자사 설립은 사우디 시장에서 자사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 특수를 겨냥하는 포석의 일환
 - 로레알 KSA는 로레알 프로페셔널(L'Oréal Professional), 케라스테이스(Kerastase), 로레알 파리(L'Oréal Paris), 가르니에(Garnier), 메이블린 뉴욕(Maybelline New York), 비쉬(Vichy) 등 브랜드 제품의 사우디 마케팅을 총괄
 - * 또 사우디 소비자들의 친밀도 제고와 니즈(needs)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기업활동, 화장품 교육 확대, 자회사 조직 역량강화 등 업무에도 주력
 - 로레알은 지난 '00년 화장품 사업부문의 사우디 독점 유통업체로 알 나기를 선택한 바 있으며, 가치를 공유한 두 회사의 로레알 KSA 설립으로 사우디에서 로레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로레알은 현재 전세계에서 10억명의 신규고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우디를 핵심 전략적 시장의 하나로 인식 [AMEinfo, 2012.11.20]

신규보고서

'12년 혁신적 의료 진단기기

- 미국의 의료정보 제공업체 피어스메디컬디바이시스(FierceMedicalDevices)는 '12년 10월에 발표한 ‘멋진 의료 진단기기 : 진단 부문에서의 진보(Cool devices and diagnostics: Advances in the field)’ 특집 기사에서 혁신적 의료 진단기기 8개를 선정해 발표

<8개 혁신적 의료 진단기기>

	업체명	기기명	특징
1	세컨드 사이트 (Second Sight)	망막보철 (retinal prosthesis)	○ 색소성망막염 환자용 안경. 카메라가 비디오 영상을 전자파로 전환해 망막에 무선 전송하면 환자의 뇌가 전자파의 패턴을 인식해 이미지를 파악
2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세포분류 칩 (Cell-sorting chip)	○ 초음파빔을 이용한 세포분류 칩. 전기에 비해 세포를 손상 없이 분류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
3	엑소 바이오닉스 (Ekso Bionics)	로봇릭 수트 (robotic suit)	○ 컴퓨터를 통해 환자 다리를 들어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전자 목발
4	MIT대	연료전지 (fuel cell)	○ 실리콘 칩으로 뇌척수액에서 혈당의 전자를 모아 수백 μ W의 미세전류를 생성함으로써 체내에서 전지 역할을 수행
5		제트 약물주입 기기 (jet injector)	○ 코일로 쌓인 강력한 자석에 전류를 방류하면 자기장이 발생해 피스톤을 작동시키는 약물주입 기기
6	에보트 (Abbott)	약물방출스텐트 (drug-eluting stent)	○ 혈류를 복구하고 항혈전제를 방출하며, 제 기능을 다한 후에는 녹아 없어지는 스텐트. 폴리락타이드로 제작
7	보스턴 사이언티픽 (Boston Scientific)	S-ICD	○ 심장에 전선이 필요 없도록 피하에 이식하는 체세동기로, 전선으로 인한 심장 및 혈관 합병증 위험을 제거
8	한양대, 전남대	마이크로로봇	○ 외부 자기장을 통해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종함으로써 혈관질환을 진단하고 치료에 활용되는 의료용 로봇

이슬람 할랄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 천연·유기농 시장 조사기관인 영국의 오가닉 모니터(Organic Monitor)는 '12년 11월 이슬람 할랄 화장품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할랄 화장품 : 라벨에 대한 신뢰(Halal Cosmetics : Believing in the Label)’ 연구 자료를 발표
 - 오가닉 모니터는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할랄’ 라벨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0년 6월 화장품에도 할랄 기준을 도입하면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도 지대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고 강조
 - * **할랄 라벨**은 선지자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샤리아법(Sharia law)’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제조된 화장품에 한해 부착
 - 이슬람 소비자들 사이 젤라틴이나 콜라겐 등 동물로부터 추출된 원료가 사용되지 않은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 규모는 50억불 정도로 추정**
- 할랄 화장품 수요가 급증하자 이슬람 국가는 물론, 이슬람 소비자들을 겨냥한 유럽과 북미 국가도 할랄 인증 채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콜게이트-파모리브, 에이본 프로덕츠, BASF 등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증가
 - 그러나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 유통 중인 할랄 화장품은 인증 신뢰도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천연·유기농 화장품과 할랄 인증을 접목한 제품들의 인기가 고조
 - * 영국에서 시판된 ‘사프 퓨어 스킨케어(Saaf Pure Skincare)’는 샤리아법을 준수한 유기농 스킨케어 제품으로 이슬람권은 물론 유럽 각국과 북미지역에까지 수출
 -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확산되면서 천연·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 할랄 화장품 시장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
 - 할랄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에서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에 충실한 **프리미엄급 화장품**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